5월 10일 아빌라의 성 요한 사제 학자

목자 공통 634면, 또는 교회 학자 공통 670면.

제1독서

〈이제 우리는 다른 민족들에게 돌아섭니다.〉

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.

13,46-49

그 무렵 바오로와 바르나바가 유대인들에게 ⁴⁶ 말하였다.

“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을 먼저 여러분에게 전해야만 했습니다.

그러나 여러분이 그것을 배척하고

영원한 생명을 받기에 스스로 합당하지 못하다고 판단하니,

이제 우리는 다른 민족들에게 돌아섭니다.

⁴⁷ 사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.

‘땅끝까지 구원을 가져다주도록

내가 너를 다른 민족들의 빛으로 세웠다.’”

⁴⁸ 다른 민족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

주님의 말씀을 찬양하였다.

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정해진 사람들은

모두 믿게 되었다.

⁴⁹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졌다.

주님의 말씀입니다.

화답송

시편 23(22),1-3.4.5.6(◎ 1)

◎ 주님은 나의 목자, 아쉬울 것 없어라.

○ 주님은 나의 목자, 아쉬울 것 없어라.

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

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어

내 영혼에 생기 돋우어 주시고

당신 이름 위하여

나를 바른길로 이끌어 주시네. ◎

○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

당신 함께 계시오니

두려울 것 없나이다.
당신의 막대와 지팡이
저에게 위안이 되나이다.

- ◎ 주님은 나의 목자, 아쉬울 것 없어라.
- 원수들 보는 앞에서
제게 상을 차려 주시고
머리에 향유를 발라 주시니
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옵니다. ◎
- 제 한평생 모든 날에
은총과 자애만이 따르리니
저는 오래오래
주님 집에 사오리다. ◎

복음 환호송

마태 5,16 참조

- ◎ 알렐루야.
-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
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.
- ◎ 알렐루야.

복음

〈너희는 세상의 빛이다.〉

- ✦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 5,13-19
-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.
- 13 “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.
그러나 소금이 제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할 수 있겠느냐?
아무 쓸모가 없으니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힐 따름이다.
- 14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. 산 위에 자리 잡은 고을은 감추어질 수 없다.
- 15 등불은 켜서 함지 속이 아니라 등경 위에 놓는다.
그렇게 하여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비춘다.
- 16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,
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
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.
- 17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들을 폐지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.

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.

18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.

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,

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율법에서 한 자 한 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.

19 그러므로 이 계명들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

또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

하늘 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불릴 것이다.

그러나 스스로 지키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이는

하늘 나라에서 큰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.”

주님의 말씀입니다.

* 이 전례문은 주교회의 2021년 춘계 정기 총회의 승인을 거쳐 사도좌 추인(2021년 4월 17일, 경신성사성, Prot. N. 164/21)을 받았습니다.